'종단 지정문화재' 제도 시행

조계종, 2001년부터…"성보보존 밑거름"
'성보' 창간호 출간…유산보존硏 올 설립

성보 및 사지의 사료를 정리하고,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고산)이 2001년까지 25교구본사 소장 성보에 대한 기초 및 실측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단지정문화재'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목된다. 또 이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사찰 소장 문화재 조사결과를 실은 〈성보〉 창간호를 출간했다.

'종단지정문화재' 제도란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보 가운데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종단에서 지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또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성보박물관, 성보문화재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등과 공조해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성보의 전산화 및 통계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또 '불교문화유산보존연구소(가칭)'를 올 하반기에 설립,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연구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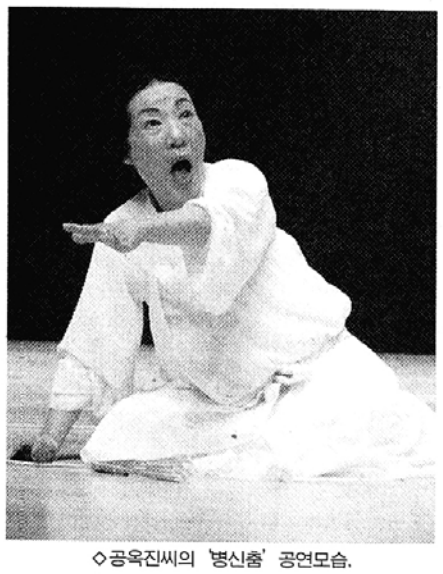
종단지정문화재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성보〉는 매년 '년보' 형식으로 발간되며, 여기에는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 및 기록이 정리되고 문화재 전문가의 평가가 실린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수타사, 분황사, 보광사에 소장된 성보 14점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수타사 사천왕상은 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당시 사천왕상을 조사했던 김창균 전문위원(성보보존위원회)은 "이 사천왕상 복장물 중 월인석보와 월인천강지곡이 발견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주목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었다. 분황사 보광전의 상량문을 조사한 이강근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는 보광전 내진고주의 속이 썩고 비어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지붕 개량공사만으로는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현재 경기도 양주군 보광사에 소장돼 있는 구(舊)조계사종을 조사한 최응천 학예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은 "12세기에 조성된 일본 고야사 종과 비슷한 양식을 지니고 있다"며 "송대에 만들어진 전등사 종이 보물로 지정돼 보호받듯, 구 조계사종이 비록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지정문화재가 될 가치가 있다"고 재평가하는 등 성보 14점에 대한 사료 및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이 개진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양산스님은 "사찰에 소장된 성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펴고, 이를 토대로 성보 현황을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교계 문화재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매년 성보에 대해 심층조사를 하는 것이 성보보호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공옥진씨의 '병신춤' 공연모습.

불심으로 병마 떨치고 다시 무대서는 공옥진

18일까지 동숭홀서 '1인 창무극'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꺾이지 않고 불심으로 빚어진 예술혼으로 재무장해 다시 무대로 돌아온 이 시대의 장인 공옥진씨(68). 절망의 벼랑끝에 내던져진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의 몸짓 언어인 병신춤을 공옥진씨가 3년만에 대학로에서 다시 선보인다. 3일부터 18일까지 동숭홀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옥진 1인 창무극'은 공옥진씨의 춤은 물론 봉산탈춤도 함께 공연돼 신명나는 춤판이 연출된다.

지난해 9월 KBS-TV '신한국기행' 촬영도중 갑자기 쓰러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는 등 건강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으나, 3월부터 이리 원효사로 거처를 옮겼으며 회복세로 돌아선 지금은 전남 영광 도갑사에서 참선과 기도 정진을 하며 춤사위를 가다듬고 있다.

'살아서 할 일이 많아 아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공옥진씨는 "병석에서도 오로지 무대만을 꿈꾼 만큼 관객들의 오장육부가 흔들리도록 한(恨)과 흥을 함께 토해 내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회암사지 사적 확대지정 필요"

경기도박물관 1차 발굴결과
"왕사의 격 갖춘 대찰"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 물러난 뒤 무학대사와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사지 제128호)가 1차 발굴 결과 왕사의 격을 갖춘 대찰이며, 사지 규모도 기존 추정치보다 더욱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장경호)이 98년 6월부터 99년 5월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회암사터 최북단 건물지인 정청은 마루와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왕이나 지체 높은 승려가 기거했던 곳으로 추정했다.

또 회암사터의 범위가 담장지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기존의 담장지 외곽에서 새로운 담장시설이 발견됐고, 연못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도 추가 발굴됐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사역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박물관 송만영 학예연구원은 "양주군에서 사적을 확대 지정하고, 사지의 격을 감안할 때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도탑에 대한 보물 지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회암사터의 초석, 배수시설, 온돌 등 기초시설이 완벽하게 하게 발굴돼, 향후 회암사 건물지 원형과 고려시대 사찰 건축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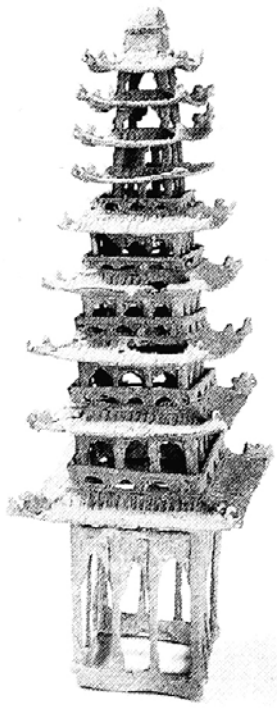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각연사통일대사탑비
신륵사 삼층석탑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23일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소재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사진 위〉를 보물 제1295호, 제천시 덕산면 소재 제천 신륵사삼층석탑〈사진 아래〉을 보물 제1296호로 각각 지정했다.

통일대사탑비는 귀부, 비신, 이수를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석비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신륵사삼층석탑은 상륜부 노반과 복발, 양화, 철주 등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신라 석탑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초기 석탑으로 미술사·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오종욱 기자



◇고려시대 '금동9층탑'.

고미술 소품과 새로운 만남

다보성 고미술전시관
불상등 1500여점 소개

고구려시대 금동삼존불입상, 고려시대 범종 등 불교유물을 포함 1,500여점의 고미술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서초동 다보성고미술전시관(대표 김종춘)은 1일부터 15일까지 '고미술 새로운 소품의 만남' 전을 개최한다.

질높고 예술성과 역사성을 두루 갖춘 고미술품 가운데 저가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민들도 조상의 얼을 친근감 있게 감상하고, 고미술품 한두점씩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는 고미술품은 도자기 3백85점, 토기 100점, 철물류 50점, 목기류 60점, 서화 120점 등 총 1천5백여점.

이 가운데 금동관음보살입상은 고구려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균형잡힌 비례와 근엄한 얼굴표정 등이 당시 불교의 의미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목조건축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의 금동9층탑은 상륜부가 완전하게 남아있어 탑파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고려시대에 제작된 범종 2구도 범종으로는 보기드문 소형으로, 중국과 일본의 종에서는 볼 수 없는 음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조상의 과학적인 주조법을 확인시켜 준다. (02)581-5600

오종욱 기자

문화 단신

'느낌, 극락같은' 대통령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가 공동주최한 제17회 전국연극제에서 극단 하늘개인날의 '느낌, 극락같은'이 최우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강백 작 곽종필 연출의 '느낌, 극락같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무대구성과 작곡, 안무, 집체무용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무대 공간의 적절한 활용과 배우들의 숙련된 연기력으로 연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무희들의 생동감 넘치는 춤과 새로 창작된 음악이 연극을 한층 빛나게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해남 문화유적지도 발간

해남군 문화원은 해남지역에 널려있는 각종 유적과 유·무형문화재 등 모든 문화유적을 빠짐없이 수록한 해남군 문화유적지도를 발간했다.

가로 80㎝, 세로 50㎝ 크기의 이 지도에는 사찰, 불상, 부도, 비석, 불교건축, 고인돌, 패총, 탑, 송수대, 기념물등 총 19종류의 각종 문화유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가로와 세로에 적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의 교차점을 이용하면 해당 문화유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불교문화 열린강좌 개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7월 22일까지 불교문화를 바르게 알고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열린강좌를 개설한다.

광주불교교육원 강의실에서 개최되는 이 강좌에는 최근 방북했다 돌아온 지선스님의 '북한의 불교문화'를 비롯 13일 김진택(전 광주교사불자협의회 회장)의 '민속과 불교', 15일 한국화가 김범수씨의 '불교미술의 세계', 20일 성호스님(관음암 주지)의 '불교서예의 세계', 22일 여연스님(해남 일지암 주지)의 '유럽 불교문화' 등이 마련됐다. (062)228-9098

'해동문학' 여름호 출간

계간 〈해동문학〉 여름호에는 원로시인 송준영의 시 세계가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 특집에는 송준영시신의 〈절집이야기·Ⅱ〉 〈대낮〉 등 11편의 시가 실려 있고, 유한근, 남진원 두 평론가가 그의 시세계를 집중조명하고 평가했다. 유한근 평론가는 "송준영 시인의 시를 선적 언어의 기호체계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매장문화재 전문기관 103곳 선정

문화재청은 6월 3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할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을 고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국립중앙·지방박물관, 대학 산하 박물관, 국립·사설연구소등 총 103개 기관. 이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동국대박물관,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중앙승가대불교사학연구소 등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교계 문화재전문가들은 "사지발굴등 불교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도 교계 전문기관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